

렉서스, 5세대 하이브리드 탑재 'UX 300h' 출시

'UX 250h' 대체... 뛰어난 주행 성능에 안전·편의사양 향상 고성능 'F SPORT' 모델도 함께 출시...가격 5240만원부터

렉서스가 2025년형 'UX 300h'를 국내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

렉서스코리아는 26일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UX 300h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년형 UX 300h는 기존 'UX 250h'를 대체하는 모델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더 높은 출력과 뛰어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 탑승객의 안전과 주행 편의를 고려한 안전 사양과 다양한 편의사양이 대폭 향상됐다.

먼저 UX 300h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고출력 모터가 적용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효율의 2.0ℓ 직렬 4기통 엔진과 높은 토크를 제공하는 고출력 모터를 결합해 199마력 발휘하며, 연비는 18km/ℓ다.

2025년형 UX 300h에는 렉서스가 새롭게 제작한 브레이크 시스템 'AHB-G'가 적용됐다. 회생제동 시 이질감을 줄이고 부드러운 제동감과 우수한 페달 조작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차량 제동 자세 제

어 기능을 적용해 전후방 제동력을 독립적으로 분배,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 편안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차체 보강에도 신경을 썼다. UX 300h는 차량 전면과 후면 공간 사이에 보강재를 추가해, 차체 강성을 향상시켰으며 핸들링 안정성과 조향 응답성 역시 강화됐다는 게 렉서스코리아 설명이다. 또 전자식 변속 시스템인 '시프트 바이 와이어 (Shift-by-Wire)'를 적용해 변속 시 보다 신속하고 우수한 조작감을 제공한다.

편의장비로는 ▲렉서스 커넥트 ▲렉서스 10-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렉서스 클라이밍 컨시어지 ▲핸즈프리 파워 백도어 등을 갖췄고 하차 시 센서를 활용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감지해 경고해 주는 '안전 하차 어시스트(SEA)'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RSA)',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PDA)' 기능 등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exus Safety System+)'로



연비와 출력 두마리 토끼를 잡은 렉서스의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2025년형 'UX 300h'. <렉서스코리아 제공>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2025년형 UX 300h 디자인은 도심 주행에 적합하면서도 화려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실내는 '크로스 크리에이트(Cross-Create)' 콘셉트를 적용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한 배치로 안전

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게 신경썼다.

고성능 모델인 'UX 300h F SPORT' 모델도 함께 출시된다. UX 300h F SPORT는 전명 전용 그릴과 블랙 도금 등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시각화하는 디자인이 적용됐다. 실내는 전용 시트와 다중

정보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주행 모드에 따라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되는 12.3인치 모니터로 차별화를 뒀다.

또 코너 주행 시 비틀림 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돕는 '퍼포먼스 댐퍼(Performance Damper)'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승차감을 다르게 조정해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 지원하는 '가변 제어 서스펜션(Adaptive Variable Suspension system)'이 적용됐다.

이 밖에 ▲패들 시프트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 ▲Sport S+ 모드 등 F SPORT 모델 전용 사양들이 장착됐다.

2025년형 UX 300h는 2WD와 F SPORT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권장소비자가격은 ▲UX 300h 2WD 5240만원 ▲UX 300h F SPORT 587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

강대한 렉서스코리아 부사장은 "2025년형 'UX 300h'는 젊고 다이내믹한 감성의 디자인과 기존 모델보다 한층 강화된 주행 성능 그리고 렉서스만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며 "UX 300h"를 통해 렉서스 하이브리드만의 주행 감성을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쏠렌토.



현대 싼타페.

중형SUV 진검승부 1년...쏘렌토, 싼타페 제치고 1위 수성

지난해 8월 나란히 변경 모델 출시 국내 SUV 시장 왕좌 다툼 1·2위

국내 스포츠유틸리티(SUV) 시장의 왕좌 자리를 놓고 기아 쏠렌토와 현대 싼타페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1년간 판매량에서는 쏠렌토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면서 SUV 시장을 넘어 올해 전체 차량 판매 1위를 예고하고 있고 쏠렌토를 상대로 싼타페는 지난해 완전변경 모델을 출시 후 SUV 판매량 2위를 뒤를 따르고 있다.

SVU 판매량 1,2 위인 두 차량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70%에 가까웠는데, 쏠렌토는 가격대가 낮은 등급인, 싼타페는 최상위 등급의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카이즈유틸리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간 쏠렌토는 9만8506대, 싼타페는 7만3797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싼타페는 지난해 11월의 경우 9099대를 판매하며 쏠렌토 판매량(8332대)을 앞서기도 했다.

두 차량의 신차 등록 통계를 확인해보니 50대가 가장 많은 구매 연령대로 나타났다. 쏠렌토는 50대가 27.3%로 가장 많았고 40대(25.1%), 30대(23.9%), 60대(16.7%)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판매됐다

쏘렌토 역시 50대(24.8%)가 가장 많았고 40대(24.7%), 30대(24.1%), 60대(19.4%) 순이었다. 구매자 성별에서는 쏠렌토가 남녀비율 각각 81.7%, 18.3%, 싼타페는 83.0%, 16.1%로 비슷했다.

두 차량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다. 쏠렌토는 하이브리드가 전체의 69.8%, 싼타페는 65.1%로 가장 많았다. 구동 방식에서는 2륜 모델(쏘렌토 83.5%, 싼타페 79.6%)이 두 차종 모두 가장 많았다

등급별로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쏠렌토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시그니처그래비티 중 비교적 낮은 등급인 노블레스의 판매량이

35.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싼타페의 경우 최상위 등급인 캘리그래피의 판매량이 53.2%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쏠렌토는 올해 국내 '베스트 셀링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쏠렌토가 1위에 오른다면 기아 차량, RV로는 처음으로 국내 판매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쏠렌토는 올해 1~7월 국내 출시된 차종 중 가장 많은 5만7184대 팔렸다.

이어 기아 카니발(5만1918대), 기아 스포티지(4만5534대), 현대차 싼타페(4만513대), 현대차 포터(4만3738대)가 베스트 셀링카 2~5위를 차지했다. 쏠렌토와 2위 카니발과의 누적 판매량 차이는 5200대가 넘는다.

기아는 1999년 현대차에 인수된 후 처음으로 쏠렌토를 내세워 국내 연간 베스트 셀링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팔린 차종은 항상 현대차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 N 벤츠·테슬라 제치고 美 '올해의 전기차' 선정

현대차의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N(사진)이 미국 자동차 전문가 '카앤드라이버'의 '2024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아이오닉5, 지난해 아이오닉6에 이어 3년 연속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를 차지했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카앤드라이버는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5 N과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9, BMW i5 eDrive 40, 메르세데스-벤츠 EQS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테슬라 사이버트럭 등 총 18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아이오닉5 N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의 첫 전용 전기차로 84kWh(킬로와트시) 용량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 등을 갖췄다.

이를 통해 최고출력 478kW(650마력), 최대토크 78.5kg·m를 구현해 주행 성능과 운전의 재미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아이오닉5 N은 '2024 월드카 어워즈'의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 부문, 영국 '2023 탐기어 어워즈'의 '올해의 차'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평가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고 현대차가 전했다.

K.C. 콜웰 카앤드라이버 편집장은 "아이오닉5

N은 마치 1980년대의 'G-모델 포르세 911 클럽 스포트'가 선사했던 진정한 마니아적인 경험을 주는 전기차"라며 "현대차는 올해의 전기차 3연패를 차지, 아이오닉을 새로운 왕조의 일원으로 합류시켰다"고 호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GM 하반기 신입사원 46명 공개채용

다음달 5일까지 지원서 접수

국내 최초 상생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GGM은 26일 기술직 신입사원 39명, 일반직 사원 7명(경력직 포함) 등 지역 인재 46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9월 5일 오후 4시까지 지원서 제출 이후, 9월 6일 오후 4시까지 AI 역량 검사를 받는다.

원서접수는 채용사이트(ggm.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하반기 상생인재 채용은 GGM이 경영 전기차인 '캐스퍼 EV' 생산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GGM은 지난 7월 캐스퍼 EV 양산을 시작하면

서 당초 올 하반기까지 1만7000대 생산 예정이던 물량을 40% 늘어난 2만3000대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GGM 직원들은 연장 근무와 토요일 특근을 통해 생산량을 맞추고 있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캐스퍼 전기차는 국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주문이 쇄도하는 등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GGM은 자본이 많은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회공헌 성격의 회사로 이번 공채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상생형 지역 인재를 선발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매년 45%씩 성장

2030년까지...글로벌 시장은 32%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까지 매해 평균 4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공개한 '2024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2년 441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4182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2%이다. 충전 인프라 시장 태동기인 2018년 해당 시장 규모는 90억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SNE리서치는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2년 11억달러에서 2030년 224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예상 성장률은 약 45%이다.

한국의 빠른 충전 인프라 시장 성장세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 주요 도시 내 충전소 설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SNE리서치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는 전기차 기술 개선, 규제 강화, 안전성 강화와 같은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캐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전기차 화재가 계속 발생한다면 전기차 보급을 둔화는 물론 충전 인프라 시장 성장 속도도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SNE리서치는 내달 24~2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배터리 관련 세미나를 열어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 전기차 안전평가 잇단 최고등급

유럽·미국 등 충돌평가 최우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전기차 모델이 세계 주요 충돌 안전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E-GMP는 저중심 설계와 충격 흡수 효율성을 높인 구조로 충돌 시 탑승자와 배터리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26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모델 5종인 제네시스 GV60,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6, 기아 EV6·EV9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

또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 평가에서도 최우수·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GV60과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는 최고의 안전성을 나타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EV9은 우수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TSP)을 받았다.

올해 진행된 IIHS 충돌 평가에서 현대차그룹의 20개 차종(현대차 9개, 제네시스 7개, 기아 4개)이 TSP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최근 출시된 E-GMP 적용 모델 기아 EV3는 아직 유럽과 미국에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5종의 전기차에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에서도 모두 최고 안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20년 12월 공개한 E-GMP는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의 특성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과는 다른 구조를 갖췄다.

배터리팩을 구조물로서 활용하는 설계로 차체 강성을 높였고, 차체의 측면에서 배터리 바깥 부분에 있는 '사이드 실'의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측면 충돌 시에도 하부 프레임과 배터리 케이스 등으로 충격을 분산한다.

차체와 배터리는 '8점 체결 구조'를 적용해 견고하게 결합했고, 하부는 초고강도 핫 스텝팅 강판으로 보강해 후방 충돌 시에도 승객이 탑승하는 세이프티존의 변형을 방지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탑승자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